

고창군,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서 은퇴예정 공무원 귀농귀촌 교육



고창군이 지난 16일 은퇴예정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'귀농귀촌 현장 알아보기' 맞춤형 현장교육을 진행했다.

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, 퇴직 예정 공무원이 귀농·귀촌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.

이들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귀농귀촌 정책설명을 듣고 체류형 센터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.

이어 고창군 귀농·귀촌 우수사례 농가 견학 및 체험을 진행하여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고창군을 소개하고 농업·농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.

이번 교육을 통해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으며, 귀농·귀촌을 활성화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농업·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특히,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서 주체하는 은퇴예정 공무원 귀농귀촌 교육은 올해 고창군에서 3회차 진행했다. 농식품교육원 김수일 원장은 귀농귀촌 1번지로 알려진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소개를 듣고 이곳을 방문한 교육생들의 호응이 이해간다며 '고창군은 귀농귀촌 1번지라는 명성답다'라고 말했다.

현행열 소장은 "은퇴를 앞둔 예비 귀농·귀촌인들이 고창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/고창=안병철 기자

전북을 바꾸는 힘! 새전북신문 *무단전재-재배포 금지

지면 : 2023-11-20 12면

<http://sjbnews.com/798667>